

“한 번 쏜 화살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흥재의
세상만사

주필

도쿄올림픽이 막을 내린 지 꽤 됐지만 아직도 여론이 쉽게 가시지 않는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주머니 챙기기'와 주최국의 '정권 연장 수단'이라는 비판마저 일었던 사상 최악의 올림픽. 그렇지만 관중 입장에서는 충분히 즐길 만했다. 코로나로 인해 방구석에 처박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 더욱 그랬다.

탁구 신동 신유빈의 훌쩍 성장한 모습도 보기에 좋았다. 다섯 살 때인가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던 꼬마는 어느새 소녀가 돼 있었다. 열일곱 살 어린 소녀는 개인 단식에서 접전 끝에 '탁구 도사' 니샤렌(룩셈부르크)을 꺾었다. 원래 중국 출신인 니샤렌은 올해 나이 스여덟 살인데도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녀가 남긴 말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나보다 젊다."

미국 여자 수구 팀의 마거릿 스테프스 선수는 중국과의 조별리그 경기 중 코패가 부러졌으나 포기

하지 않았다. 미국 팀의 3연속 올림픽 금메달을 이끈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부러졌더라도 상관없다. 정신은 살아 있고 이게 바로 올림픽이 있는 이유다. 내 부상이 잘 보여서 그렇지 다들 여기저기 명들거나 상처투성이다." 그렇다. 모두들 참으로 힘들게 훈련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5년간 열심히 준비한 우리 선수단은 코로나로 우울했던 국민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육상 남자 높이뛰기에서 한국신기록을 세우고 도 2cm 차이로 4위가 된 이상혁 선수는 "결과를 빨리 인정하면 행복도 빨리 찾아온다"고 했다. 과거엔 힐난을 받았을지도 모를 그의 발언은 이제는 오히려 많은 이들의 공감을 자아냈다. "준비된 사람의 자신감은 자만이 아니라 걸 알았다"고 당당히 말하기도 했다. 세계 랭킹 15위의 여자 배구가 4강에 오르는 데 견인자 역할을 한 김연경 선수의 "해 보자. 해 보자. 해 보자"란 말도 올림픽 어록으로 남았다.

올림픽에 관한 몇 가지 제안

그리고 보니 이번 올림픽에서는 4등으로 아깝게 메달을 놓친 종목도 많았다. 4등은 '황홀과 침통의 갈림길'이라고 했던가. 우리나라 대표팀은 무려 열두 개 종목에서 그런 '안타까운 4위'를 했다. 하지만 메달보다 더 값진 패배였다. 수영에서 아시아신기록을 세운 황선우, 여자역도의 이선

미, 사격의 한대훈, 마루운동의 류성현. 이들 모두 승패보다 한계에 도전하는 열정과 노력이 더 빛났다. 과거 본선에라도 가 보지 못했던 다아빙의 우하람은 이번엔 메달 직전까지 도약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고개를 떨구고 절망하는 4위가 아니었다. 후회 없이 만족하고 앞날을 기억하는 희망의 4위였다. 이들은 '한국 스포츠 역사를 새로 쓴 4위 패가'로 칭찬을 받기까지 했다. '근대 5종'이라는 다소 생소한 경기에서 4위를 한 정진화는 '이런 종목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었다. 그는 '깜짝 동메달'을 딴 후배 전용태와 함께 아쉬움과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패배한 선수에게도 갈채를 보내는 국민의 여유가 그 어느 때보다 돋보였다. 금메달 숫자로 국가 순위가 정해지다 보니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따고도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야 했던 과거와는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그래도 아쉬움은 남는다. 4위에게는 별 혜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올림픽에서 남자 선수들의 군 면제 기준만 보더라도 동메달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동메달과 노메달은 포상금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차이가 난다. 그러나 정작 선수들은 관중들만 웃는데도 경기를 보는 관중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해 본 올림픽에 관한 첫 번째 제안은 조금 생동감 있지만 목메달(나무메달)을 신설하는 것이다.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근대 올림픽이 시작

됐을 때 우승자는 올리브 월계관과 함께 은메달을 받았다. 2위에게는 동메달을 주었고 3위는 아무 것도 받지 못했다. 1900년 제2회 프랑스 파리 대회 때는 트로피만 수여했다. 1904년 제3회 미국 세인트루이스 올림픽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금메달이 등장했고 이때부터 1·2·3위에게 금·은·동메달을 주는 전통이 이어졌다.

모두 주인공, 덕분에 즐거웠다

올림픽에서 국가별 순위를 정하는 방법은 나라별로 조금씩 다르다. 한국은 금메달 비중을 최우선으로 두고 순위를 매긴다. 금메달 한 개만 따도 은메달 열 개를 딴 것보다 더 높은 순위가 되는 것이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일까. 그래서 해 본 올림픽에 관한 두 번째 제안은 총 메달 획득 수로 종합 순위를 매기자는 것이다.

이번 올림픽에서 세계 양궁사상 첫 3관왕이 된 광주여대 안산 선수는 근계일화(緡一鶴)이었다. 하지만 1·2점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양궁 경기는 보는 내내 손에 땀을 쥐게 했다. 특히 슛오프(shootoff: 축구의 승부차기 같은 것)까지 가는 접전이 이어지면 더욱 가슴을 졸여야 했다. 그래서 해 본 올림픽에 관한 세 번째 제안은 현재 열 개인과 단체의 동심원(同心圓)을 열다섯 개 정도로 늘리자는 것이다. (정중양에 맞으면 15점) 이렇게 하면 선수들도 노력한 만큼 제 기량을 발휘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게 승자와 패자를 가릴 수 있지 않을까?

한국 태권도는 이번 대회를 '노 골드'로 마무리했다. 종주국 체면을 많이 구졌지만 그러나 노메달보다 더 아쉬운 것은 태권도의 재미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태권도의 매력을 잃게 만든 주범은 판정 시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전자호구다. 그래서 해 보는 올림픽에 관한 네 번째 제안은 태권도 경기에서도 권투처럼 녹다운(knockdown)이나 케이오(KO)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기술적인 태권도를 보여 줄 수 있는 규정을 더해야 선수들이 몸을 맞댄 채 발바닥으로 상대 몸에 붙은 전자호구 센서만 찾아다니는 걸 막을 수 있겠기 때문이다.

이번 대회는 한국 사회가 올림픽의 새로운 의미를 찾는 과정이기도 했다. 메달과 관계없이 선수들이 보여 준 헌신과 투지에 사람들은 열광했다. 금메달 개수가 중요했던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우리는 무한경쟁 시대에 이긴 자만이 모든 걸 차지하는 승자 독식 사회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선수들은 때론 질 수도 있고 힘들면 기권해도 괜찮다는 걸 보여 주었다.

남자 양궁 개인전 8강에서 고배를 마신 뒤 "충격적이지 않느냐?"란 취재진의 우문(愚問)에 우리 김우진 선수가 내놓았던 헌답(賢答)으로 오늘의 이 글을 마무리한다. "내가 쏜 화살이고 한 번 쏜 화살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게 삶이다. 어떻게 해피엔딩만 있을 수 있겠는가?"

‘봉오동 전투’ 흥범도 장군, 고국에 잠들다

문대통령 “잘 돌아오셨습니다”
대전 현충원에 유해 안장

항일무장투쟁을 이끈 독립운동가 흥범도 장군이 고국 땅에서 영면했다.

광복절인 지난 15일 카자흐스탄에서 봉환된 흥범도 장군의 유해가 18일 오전 10시 30분 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제3묘역에 안장됐다. 흥범도 장군이 별세한 지 78년 만이다.

안장식에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흥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위해 카자흐스탄을 찾았던 특사단, 여야 정당 대표, 국방부 장관과 각급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흥범도합장 등이 참석했다. 흥범도장군기념사업회, 남양 흥씨 문중 대표, 대한고려인협회장과 고려인들도 자리했다.

안장식은 국민대표 자격으로 특사단에 포함됐던 배우 조진웅 씨의 사회로 진행됐다.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대전현충원 현충관에 임시 안치됐던 흥범도 장군의 유해는 영정을 든 남양 흥씨 문중 대표를 선두로 국방부 의장대에 의해 행사장으로 옮겨졌다. 문 대통령 내외는 흥범도 장군의 유해와 영정 앞에 카자흐스탄의 추모화인 카네이션과 한국에서 추모를 상징하는 국화로 만들어진 화환을 올리고 분향한 뒤 고개를 숙였다. 참석자들은 21일의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흥범도 장군 유해 안장식에서 하관된 흥범도 장군의 유해 위에 허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포가 발사되는 가운데 묵념으로 고인의 넋을 기렸다. 이어 문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독립전쟁의 영웅,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흥범도 장군이 오늘 마침내 고국산전에 몸을 누이신다”며 “흥범도 장군님, 잘 돌아오셨습니다. 부디 편히 쉬십시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나 흥범도, 고국 강토에 돌아왔네. 저 멀리 바람 찬 중앙아시아 빈 들에 잠든 지 78년 만일세...고향 흙에 뜨거운 눈물 뚝뚝 떨어지네”라는 이동순 시인의 글을 인용했다. 이동순 시인은 10권 분량의 ‘흥범도’ 대하 서사시를 완결한 바 있다. /연합뉴스

‘미리 보는 2021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9월 1일 개막 앞두고 동북아시아 국제행사서 홍보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사무국은 18일 “오는 9월 1일 ‘2021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개막을 앞두고, 최근 열린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총회에서 ‘미리 보는 2021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총회는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전남도와 경북도, 울산시 등 한국 16개 지방자치단체와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까지 5개국 72개 지역자치단체가 참석했다.

설명회에서 이근수 2021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총감독은 ‘오채찬란 모노크롬 - 생동하는 수목의 새로운 출발’을 주제로 열리는 비엔날레를 소개했다. 특히 해외 참여자가 수목에 얽힌 이야기와 전시 내용을 쉽게 알도록 온라인 프로그램

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근수 총감독은 “1회 수목비엔날레에서 보여줬던 전통수목뿐만 아니라, 수목이 어떻게 현대적으로 해석돼 우리 삶과 연계되는지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사무국은 지난 5월 비엔날레 참여 시군,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하고, 가수 송가인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등 ‘D-100 일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펼쳤다.

‘2021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목표와 진도에 주전시기를 운영, 도내 11개 시군과 광주시까지 함께하는 특별전, 시군 기념전을 개최해, 남도 전역에 수목 축제 분위기를 확산할 예정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입야, 단독섬
삽니다. 010-6837-4700

급매물과 투자
경매물건에 투자
하실 분. 010-3605-5000

장성 토지 (매매 분양)	상가매매 (상무지구)
<p>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p> <p>토지평수 (150, 200, 500, 1800)</p> <p>전원주택, 창고, 투자적합</p> <p>010-6670-9800</p>	<p>1) 감정가(시세) 9억 매매가 6억 3천(용 4억)</p> <p>2) 월수익 300만 (보4천)</p> <p>3) 평수 140평, (전용 100평)</p> <p>● 6층 평수 80평 매가4억5천(용 2억6천) ● 7층 평수 60평 매가 2억 3천 (용 9천) (사무실 리모델링함, 바, 휴룸, 모던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p>010-6670-9800</p>

해산 및 채권제출공고 (1차)
재단법인 남도문화재단은 2021년 8월 11일 이사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현재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바, 본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2021년 10월 19일까지 그 채권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채권신고가 없는 경우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9일
재단법인 남도문화재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43
대표정산인 윤 주 봉

주주확정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
임시주주총회를 위해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 2021년 9월 2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하여 2021년 9월 3일부터 2021년 9월 9일까지 주식명의개서, 질권등록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고자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9일
주식회사 광주방송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19
대표이사 임 채 영
명의개서대리인 KKB국민은행 은행장 허 인

조직변경공고
본 회사는 2021년 8월 17일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전원일지에 의하여 농업회사법인 보평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게제 다음날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21년 8월 19일
보평 영농조합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번길 8, 3층 (차량동)
대표조합원 한 지 훈

분실공고
공급계약서 :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364-1번지 일대
전대 풍경재 센트럴파크 203동 1801호
계약자 : 선호일
위와 같이 분실공고함.
2021년 8월 19일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1-1511호
도시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안) 주민 의견청취 공고
무등산 고지대마을의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계획에 대하여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13일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1. 사업명 :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2. 공고내용
유통 및 공급시설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률		
신설	①	수도공급설비 (급수배수지)	북구 금곡동 917-1	-	증) 194	194		배수시설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①	수도공급설비 (급수배수지)	수도공급설비 신설 - 위치 : 북구 금곡동 917-1 - 면적 : 194㎡	배수지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하고 지 수도공급설비(배수지)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함

3.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 2021년 8월 13일 ~ 2021년 8월 27일(15일간)
4.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개체 생략)
5. 열람장소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과
6. 의견제출처 : 광주광역시 북부1길 27(행림동) 상수도사업본부 급수과
7. 문의 의처 :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과 ☎062-609-6274, FAX 062-609-6279

상행안내
8월22일)
▲광주KJ산악회 8월22일(일) 경북 충북, 괴산, 문경&백두대간 대야산 정상 비로봉 선유봉계곡 산행, 열주체육관 06:00, 동아병원 06:05, 롯데백화점 06:10, 광주역 06:15, 문예후문 06:25, 비엔주차장 06:30 ※ 다음가배 광주KJ산악회 ☎ 010 7794 6920

光州日報
지국안내

북구	• 동 266-1920 • 문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동 433-1503 • 우 산 433-1503
동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양 222-9054 • 중 정 222-8171
남구	• 남 부 673-6836 • 백 운 651-1833 • 봉 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문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임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문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